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의 방문물리치료 도입에 대한 노인요양시설 물리치료사의 인식조사연구

Research for the Inclusion of Home-Based Physical Therapy in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of Physical Therapists in Elderly Care Facilities

이광재*, 노정석**

한서대학교 대학원*, 한서대학교 물리치료과**

Kwang-Jae Lee(youngkj@naver.com)*, Jung-Suk Roh(rrohjs@hanseo.ac.kr)**

요약

본 연구는 앞으로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의 확대 시 우선적으로 방문물리치료 서비스 도입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그를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 하에서 물리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노인시설 물리치료사들의 제도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인지도는 88.1%로 높았으며 필요성에서도 높았지만 40세 이상에서 절대 필요하다는 응답이 60.3%로 더 높았다. 또한 수가는 방문간호를 기준으로 높게 책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59.7% 가장 높았다. 방문물리치료서비스 중 가장 중요한 치료접근으로는 일상생활 지도가 40%로 가장 높았고, 서비스 주체로는 방문간호센터처럼 방문재활센터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69.4%를 차지했다. 방문물리치료 시행에 따른 기대효과는 50점 만점에 전체 평균 41.44점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40세 이상에서 42.48점으로 나타나 전체적인 기대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중심어 : | 노인장기요양보험 | 방문물리치료 | 노인 |

Abstract

This study of the elderly in the future expansion of long-term care insurance as a priority landing at the introduction of physical therapy services aim to provide baseline data and long-term care insurance for him, the elderly that provides physical therapy services under the elderly property of a physical therapist recognition system for the investigation was conducted. As a result, the perception of the elderly long-term care insurance was higher by 88.1% of the higher needs, but also the absolute need for more than 40 years of age the response was higher with 60.3 percent. In addition, the number of visits that care should be priced higher relative to the 59.7 percent was the highest opinion. Visit of physical therapy services include the most important therapeutic approach to life and 40% was the highest forum, visit the Nursing Center as a service principal points that you need to visit the rehab center, accounting for 69.4 percent opinion. The expected effect of physical therapy visits conducted in a 50-point scale showed an overall average 41.44 points and 42.48 points, especially over the age of 40 appear in the overall expected effect was higher.

■ keyword : | Long-Term Care Insurance | Home-Based Physical Therapy | Elderly |

I. 서론

우리나라는 지난 수십년간 평균수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65세 이상 노인이 2000년 7.2%를 기록하여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2010년 실시한 2010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집계결과 65세 이상 인구는 542만명으로, 총인구의 11.3%를 기록하여 모든 시도에서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다. 또한 2018년에는 노인인구가 14%이상으로 증가할 것이 예측되고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어지고 있다[1]. 이러한 노인 인구의 증가는 급성 질환보다는 장기적인 처치와 관리를 요구하는 만성적 질환인 뇌졸중, 당뇨, 고혈압, 암 등의 발병에 따른 사망률이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재활적 접근이 필요한 뇌혈관질환 및 고령에 의한 쇠약, 골절, 낙상, 치매 등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는 이제는 개인이 담당할 수 있는 의료적 접근을 넘어 공적인 접근이 보다 요구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더욱 재활적 접근을 필요로 하고 있다 [2].

그에 따라 2007년 4월 23일 국회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통과되었고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어 올해 만 삼년을 넘기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표준서비스 분류로는 신체활동지원 서비스, 일상생활지원서비스, 개인활동지원서비스, 정서지원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기능회복 훈련서비스, 치매 관리 지원서비스, 응급서비스, 시설환경관리 서비스, 간호처치 서비스 등이다[3]. 그러나 선행연구를 통해 완전독립 및 부분의존단계에서 체계적인 재활운동은 가정간호사가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물리치료사가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지만 [4] 재활과 관련된 기능회복 훈련서비스는 시설급여와 재가급여에서는 주간보호 및 단기보호에 한정되어 있다.

재가에서의 재활서비스의 필요성 및 이용욕구에 관한 선행연구를 보면 대다수는 그 필요성 및 욕구가 상당히 높지만 현실에서는 그러한 욕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2009년 1월 실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식도 및 만족도 조사에서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종류 확대 시 가장 우선적으로 포함시켜야 할 서비스로 재활서비스

가 58%로 가장 많은 요구를 보이고 있다[5].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3주년 맞이 국민만족도 조사에서의 온라인 이용자를 통한 의견수렴 조사에서도 ‘장기요양 인정등급 확대’, ‘치매노인 등급판정기준 완화’, ‘방문재활 서비스 추가’, ‘요양보호사 자격제도 및 처우개선’, ‘노인성 질환 인정 범위 확대’ 등의 의견이 있었으며 이 중 방문재활 서비스 추가를 원하는 의견이 전체의견의 8.9%를 차지하여 세 번째로 높았다[6].

이에 본 연구는 현재 노인요양시설에서 입소자들의 기능회복을 목적으로 재활 및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물리치료사들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의 방문물리치료의 도입에 대한 인식도를 알아보고 이를 통하여 현 제도에서의 방문물리치료가 도입될 수 있는 기초적인 자료를 마련하고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II. 연구방법

1. 연구기간 및 연구대상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6월 27일부터 6월 30일까지 2011년 전국노인복지시설 물리치료사 연수회에 참석한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한 후 자체 제작한 설문지를 사용하여 조사하였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기존의 연구들에서 본 연구의 방향과 적절하게 일치하는 도구가 없는 상황으로 연구자의 목적에 맞게 연구자가 자체 제작 편집하여 사용하였다.

설문내용은 조사자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6문항을 조사했고, 이중 자격 취득에 대한 문항은 복수 응답을 요구하였고, 방문물리치료에 대한 인식정도와 필요성에 대한 5문항, 방문물리치료에 대한 운영방안에 대한 6문항, 그리고 방문물리치료가 시행되었을 때의 기대효과에 대한 10문항을 설문내용을 하였다.

설문지에 관한 신뢰도 분석에서 방문물리치료에 대

한 운영방안에 관한 문항은 Cronbach's α 값이 .825였고, 방문물리치료가 시행되었을 때의 기대효과에 대한 문항은 Cronbach's α 값이 .932로 두 경우 높은 신뢰도를 나타내었다.

3. 연구방법

본 연구를 하기 위해 사전에 자료 수집을 하였다. 자료수집종류는 방문물리치료에 대한 인식정도와 필요성과 방문물리치료에 대한 운영방안 및 노인장기요양제도에서의 방문물리치료의 실행에 대한 연령과 근무경력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인식유무와 방문물리치료가 시행되었을 때의 기대효과 등에 관한 설문 조사를 한국노인시설중양회에서 주관하는 물리치료사연수에서 강의 중 쉬는 시간을 이용하여 사전 설문지로 조사하였다. 설문내용 중 자격 여부는 노인복지시설의 특성상 복수응답을 허용하였다.

배부된 설문지는 200부였으며, 답변내용이 부정확하거나 부실한 설문지를 제외한 총 160부를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내용에서 대부분의 문항은 범주화하여 답변을 요구하였고, 자격취득 및 방문물리치료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한 관련 이유와 방문물리치료서비스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치료접근에서는 복수응답을 요구하였다. 방문물리치료가 시행되었을 때의 기대효과는 Likert 5점 척도를 이용하여 10문항으로 하였는데 기록된 값을 모두 합하여 만점 50점으로 하고 이를 집단 간의 평균값을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4. 분석 방법

측정된 자료는 기호화 하여 SPSSWIN ver 12.0으로 분석하였으며, 유의수준 .05 수준에서 검증하였다.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분석은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연령과 근무경력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있어 방문물리치료에 대한 인식, 필요성, 운영 방안 등에 대한 인식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Chi-square 분석을 하였다. 또한 복수응답으로 요구된 문항은 multiple response 분석을 하였으며, 5점 척도로 조사한 방문물리치료가 시행되었을 때의 기대효과는 연령, 근무 경력에 따라서 일원배치분산분석(one way-anova)

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빈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1]. 성별은 전체 160명 중 남자가 31명으로 19.4%, 여자가 129명으로 80.6%로 나타났으며, 연령 분포는 남자와 여자의 합계에서 40세 이상이 39.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5-40세 미만은 21.3%, 30-35세 미만은 20.6%, 30세 미만은 18.6%로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시설에서 근무하는 물리치료사들의 나이가 대체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학력은 전문대 졸업자가 61.3%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사가 30.0%, 석사가 8.1%, 박사가 0.6%로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면허의 종류에는 물리치료사가 79.2%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복지사가 15.6%, 기타 자격이 2.6%, 작업 치료사가 2.1%, 언어 치료사가 0.5%로 순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간호조무사, 언어치료사, 운동처방사, 인간공학기사 등의 자격 등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 응답자의 일반적 사항

		빈도	퍼센트
성별	남	31	19.4
	여	129	80.6
연령	30세 미만	30	18.8
	30-35세 미만	33	20.6
	35-40세 미만	34	21.3
	40세 이상	63	39.4
학력	전문대	98	61.3
	학사	48	30.0
	석사	13	8.1
	박사	1	.6
자격 여부 (중복응답)	물리치료사	152	79.2
	사회복지사	30	15.6
	작업치료사	4	2.1
	언어치료사	1	.5
	기타	5	2.6
합계		160	100.0

2. 조사대상자가 근무하는 요양기관에 대한 규모와 근무 근속 기간

조사대상자가 근무하는 요양기관 규모와 근무 근속 기간에 관한 빈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2]. 요양시설의 규모는 80인 이상 요양시설이 48.8%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50인 이상 요양시설이 41.3%, 30인 이상 요양시설이 9.4%, 10인 이상 요양시설이 0.6%로 순으로 나타났으며, 5~9인 시설에서는 근무하는 물리치료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 근속 기간은 1~3년이 36.9%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5년 이상이 24.4%, 1년 미만인 23.1%, 3~5년이 15.6%로 순으로 나타났다.

표 2. 요양기관 규모와 근무 근속기간

		빈도	퍼센트
근무처	80인 이상 요양시설	78	48.8
	50인 이상 요양시설	66	41.3
	30인 이상 요양시설	15	9.4
	10인 이상 요양시설	1	.6
근무기간	1년 미만	37	23.1
	1~3년	59	36.9
	3~5년	25	15.6
	5년 이상	39	24.4
합계		160	100.0

3.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있어서의 방문물리치료에 대한 인식과 필요성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08년도 7월부터 실시되고 현재 3년이 넘는 시점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에 있어서 방문물리치료에 대한 인식과 필요성에 대한 설문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있어서 재가급여에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는 제공되고 있으나 방문물리치료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알고 있다는 답변이 88.1%로 압도적으로 나타났으며, 모르고 있다는 답변은 11.9%로 나타났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의 방문물리치료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한 문항에서는 절대필요하다와 필요하다는 답변이 각각 48.1%, 50.6%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는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방문물리치료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한 차이 결과, 30세 미만인 경우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70.0%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타 연령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40세 이상인 경우는 절대 필요하다는 응답이 60.3%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타 연령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표 3. 방문물리치료에 대한 인식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전체	χ^2	p
연령	30세 미만	27 90.0%	3 10.0%	30 100.0%	.144	.986
	30-35세 미만	29 87.9%	4 12.1%	33 100.0%		
	35-40세 미만	30 88.2%	4 11.8%	34 100.0%		
	40세 이상	55 87.3%	8 12.7%	63 100.0%		
	1년 미만	30 81.1%	7 18.9%	37 100.0%		
근무경력	1~3년	50 84.7%	9 15.3%	59 100.0%	5.57 6	.134
	3~5년	24 96.0%	1 4.0%	25 100.0%		
	5년 이상	37 94.9%	2 5.1%	39 100.0%		
	전체	141 88.1%	19 11.9%	160 100.0%		

필요성에 대한 이유로는 가장 많은 답변으로 노인의 일상생활동작을 유지시켜 주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36.1%를 차지 했으며 다음으로 노인의 재활을 향상시켜 주기 때문이라고 답변이 33.5%로 나타났다. 그 다음 순으로 환자가 의요기관에 가기 힘들기 때문이라는 답변도 23.4%를 차지했다. 또한 전체적인 의료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다른 답변에 비하여 차지 하는 비율은 낮았으나 5.7%를 차지했고, 기타 의견으로는 물리치료사의 활동영역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필요하지 않다는 답변은 1.3%를 차지했고, 그 이유로는 효과가 미비할 것 같다는 이유, 적은 시기상조라는

이유라고 응답하였다[표 4].

표 4. 방문물리치료 서비스 필요성 차이

		절대 필요하다	필요 하다	필요하지 않다	전체	χ^2	p
연령	30세 미만	8 26.7%	21 70.0%	1 3.3%	30 100.0%	13.150*	.041
	30~35세 미만	18 54.5%	15 45.5%	0 .0%	33 100.0%		
	35~40세 미만	13 38.2%	20 58.8%	1 2.9%	34 100.0%		
	40세 이상	38 60.3%	25 39.7%	0 .0%	63 100.0%		
	전체	77 48.1%	81 50.6%	2 1.3%	160 100.0%		
근무경력	1년 미만	18 48.6%	18 48.6%	1 2.7%	37 100.0%	6.957	.325
	1~3년	22 37.3%	36 61.0%	1 1.7%	59 100.0%		
	3~5년	13 52.0%	12 48.0%	0 .0%	25 100.0%		
	5년 이상	24 61.5%	15 38.5%	0 .0%	39 100.0%		
	전체	77 48.1%	81 50.6%	2 1.3%	160 100.0%		

*p<.05

4. 방문물리치료 운영방안

방문물리치료 운영방안의 설문에서는 방문물리치료사의 자격조건과 방문물리치료의 주간 방문 횟수와 1회 방문물리치료 소요시간에 대한 적절성 및 적당한 방문물리치료 수가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였다. 또한 방문물리치료 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치료접근에 대한 설문도 실시하였는데 이 문항에서는 복수 응답을 허용하였다. 그리고 방문물리치료 운영에 있어서 운영주체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였다.

먼저 방문물리치료사의 자격조건으로는 자격을 위한 교육과정 이수와 노인시설물리치료 경력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는 의견이 51.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자격을 위한 교육과정 이수가 31.9%로 높았다. 그리고 노인시설물리치료 경력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16.3%이었고 기타 의견으로는 방문물리치료사의 마음씨가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표 5].

방문물리치료의 주 방문 적당한 횟수에 대한 생각에서는 2회가 60.0%로 다른 의견에 비하여 가장 많았고 3회도 33.1%로 많았고 1회도 4.4%를 차지했으며 5회라

는 의견도 1.9%가 있었고 4회라는 의견은 0.6%가 있었다. 또한 방문물리치료의 1회 소요시간에 적절한 정도에 대한 문항에서는 30~60분 미만이 78.1%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30분 미만이 18.1%, 60분 이상이 3.1%, 기타가 0.6%로 순으로 나타났다. 60분 이상의 그 이유로 효과가 미비할 것 같아서, 아직 시기상조인 것 같아서라는 의견이 있었다.

표 5. 자격 조건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과정

		자격을 위한 교육과정 이수	노인시설 물리치료 경력	둘다 필요	전체	χ^2	p
연령	30세 미만	13 43.3%	5 16.7%	12 40.0%	30 100.0%	7.969	.240
	30~35세 미만	14 42.4%	2 6.1%	17 51.5%	33 100.0%		
	35~40세 미만	9 26.5%	6 17.6%	19 55.9%	34 100.0%		
	40세 이상	15 23.8%	13 20.6%	35 55.6%	63 100.0%		
	전체	51 31.9%	26 16.3%	83 51.9%	160 100.0%		
근무경력	1년 미만	9 24.3%	5 13.5%	23 62.2%	37 100.0%	5.268	.510
	1~3년	24 40.7%	8 13.6%	27 45.8%	59 100.0%		
	3~5년	7 28.0%	4 16.0%	14 56.0%	25 100.0%		
	5년 이상	11 28.2%	9 23.1%	19 48.7%	39 100.0%		
	전체	51 31.9%	26 16.3%	83 51.9%	160 100.0%		

방문물리치료의 수가의 적당한 정도에 대한 문항에서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방문간호의 수가를 제시하고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의 수가가 적당한지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았다. 이에 방문간호 수가보다 상향 하여 책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59.7%로 가장 많았고 방문간호 수가에 준해서 책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39.0%를 차지했으며 기타 의견이 1.3%가 있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적지 않았다[표 6].

방문물리치료서비스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치료접근에 대한 문항은 일상생활동작 지도가 40.0%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근 골격계 통증치료(전기치료 포함)가 28.1%, 신경계 운동치료가 24.4%, 건강관리지도 및 상담이 3.1%, 심혈관계 물리치료가

2.5%, 기타가 1.9%로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에 따라서 살펴보면 35-40세 미만인 경우는 일상생활동작 지도가 52.9%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타 연령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40세 이상인 경우는 신경계 운동치료가 38.1%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타 연령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27.815, p<.05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5).

표 6. 치료의 수가의 적당한 정도

		수가에 준해서	상당하 여	기타	전체	χ^2	p
연령	30세 미만	16 53.3%	14 46.7%	0 .0%	30 100.0%	7.476	.279
	30-35세 미만	11 33.3%	22 66.7%	0 .0%	33 100.0%		
	35-40세 미만	16 47.1%	17 50.0%	1 2.9%	34 100.0%		
	40세 이상	19 30.6%	42 67.7%	1 1.6%	62 100.0%		
	근무 경력	15 40.5%	21 56.8%	1 2.7%	37 100.0%		
1~3년	23 39.7%	34 58.6%	1 1.7%	58 100.0%			
3~5년	11 44.0%	14 56.0%	0 .0%	25 100.0%			
5년 이상	13 33.3%	26 66.7%	0 .0%	39 100.0%			
전체	62 39.0%	95 59.7%	2 1.3%	159 100.0%			

또한 방문물리치료서비스의 운영주체는 어디가 좋겠느냐를 묻는 문항에서는 현재 방문간호센터에 준한 방문재활센터로 해야한다는 의견이 69.4%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공의료기관이나 보건소가 26.3%, 지역복지관이 2.5%, 기타가 1.3%, 종합병원이 0.6%로 순으로 나타났다. 공공의료기관이나 보건소라고 답변한 이유는 보험수가의 원활한 조달을 위함이라는 의견도 적어 주었다.

이는 연령에 따라서 살펴보면 30세 미만인 경우는 공공의료기관이나 보건소가 33.3%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타 연령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40세 이상인 경우는 방문재활센터(방문간호센터에 준한)가 77.8%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타 연령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24.747, p<.05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p<.05)[표 7].

표 7. 방문물리 치료 서비스의 운영주체

	종합병 원	공공의 료기관 이나 보건소	방문재 활센터 (방문간 호센터 에 준한)	지역복 지관	기타	전체	χ^2	p
연령 30세 미만	1 3.3%	10 33.3%	18 60.0%	0 .0%	1 3.3%	30 100.0%	24. 747 *	.01 6
30-35세 미만	0 .0%	10 30.3%	23 69.7%	0 .0%	0 .0%	33 100.0%		
35-40세 미만	0 .0%	8 23.5%	21 61.8%	4 11.8%	1 2.9%	34 100.0%		
40세 이상	0 .0%	14 22.2%	49 77.8%	0 .0%	0 .0%	63 100.0%		
근무경력 1년 미만	0 .0%	11 29.7%	22 59.5%	2 5.4%	2 5.4%	37 100.0%		
1~3년	0 .0%	19 32.2%	39 66.1%	1 1.7%	0 .0%	59 100.0%		
3~5년	1 4.0%	4 16.0%	20 80.0%	0 .0%	0 .0%	25 100.0%		
5년 이상	0 .0%	8 20.5%	30 76.9%	1 2.6%	0 .0%	39 100.0%		
전체	1 .6%	42 26.3%	111 69.4%	4 2.5%	2 1.3%	160 100.0%		

*p<.05

5. 방문물리치료 시행에 따른 기대효과

방문물리치료가 시행되었을 때 어떤 효과를 기대하는지에 대한 설문은 총 10문항으로 기대효과가 매우 크다가 5점, 기대효과가 크다는 4점, 보통이라는 3점, 기대효과가 없다는 2점, 기대효과가 거의 없다는 1점으로 척도화 하여 전체 10문항에 대한 총합을 구하여 50점을 만점으로 총점을 산출하였다.

전체 기대 효과의 평균 점수는 41.44점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에 따른 기대 효과 차이 결과, 40세 이상이 42.48점으로 나타나, 전체적인 기대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30세 미만이 41.70점, 30-35세 미만이 41.48점, 35-40세 미만이 39.26점 순으로 나타났으며 (F=1.711, p>.05), 경력에 따른 차이 결과는 3-5년 경력자가 42.68점, 5년 이상이 41.74점, 1년 미만이 41.27점, 1-3년이 40.83점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 경력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오이지는 않았지만, 대체적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경력이 오래 된 경우가 방문물리 치료에 대한 기대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표 8].

표 8. 방문물리 치료 기대효과 차이

		N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연령	30세 미만	30	41.70	5.503	1.711	.167
	30~35세 미만	33	41.48	6.195		
	35~40세 미만	34	39.26	7.415		
	40세 이상	63	42.48	7.057		
	합계	160	41.44	6.748		
근무 경력	1년 미만	37	41.27	6.145	.471	.703
	1~3년	59	40.83	7.088		
	3~5년	25	42.68	6.992		
	5년 이상	39	41.74	6.742		
	합계	160	41.44	6.748		

IV. 고찰

본 연구는 현재 노인요양시설에서 입소자들의 기능 회복을 목적으로 재활 및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물리치료사들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의 방문물리치료의 도입에 대한 인식도를 알아보고 이를 통하여 현재 제도에서의 방문물리치료가 도입될 수 있는 기초적인 자료를 마련하고 환경을 조성하고자 실시하였다.

전국노인생활실태조사를 보면 2001년에 우리나라 노인들 중 진단받은 만성질환을 1개 이상 가지고 있는 노인들의 비율이 87.6%에 달하고 있었는데, 2005년 조사한 자료에서는 그 비율이 90.9%로 증가되었다[7]. 이것은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재활전문가의 수요를 더욱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그렇다면 물리치료사들은 노인정책과 질환에 대해 어느 정도의 이해와 인식을 하고 있는가는 중요한 부분이다.

선행 연구를 보면 노인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물리치료사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이해와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인식은 대부분 잘 알고 있으며 노인성 질환에 대한 이해도에서 ‘많이 알고 있다’라는 응답이 30~39세에서 40.7%, 40세 이상에서 53.1%로 응답이 나왔다[8]. 이러한 연구는 경험이 많을수록 노인에 대한 이해가 보다 높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노인병의 특성은 다학제적 접근이 요구되기 때문에

[9] 효율적인 노인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뿐만 아니라 물리치료 등이 함께 참여하는 노인의료팀의 구성이 필수적이다[10]. 이것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하면 지역사회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보건복지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12] 그 중 하나가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이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취약계층 가족 및 가구원의 능력향상을 돕기위해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치과위생사 등의 보건전문인력이 지역주민의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증진, 질병예방, 질병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13].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가정방문 의료팀 구성을 통한 팀 접근을 통해 환자의 적극적인 태도를 이끌어 내고 있다[14].

그런데 현재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노인들은 방문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가서비스에는 6가지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방문간호, 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 등이다[11]. 일상생활유지 증진을 위한 재활서비스는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제도적 모순을 인식하고 제도적 변화의 필요성과 적극성을 보이는데 있어서도 또한 본 연구를 통해 보듯이 노인시설에서의 경험과 경력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그렇다면 방문물리치료를 대한 전문적 서비스 도입을 위해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방문서비스 인력들 간의 업무 중복을 줄여야 한다. 방문간호서비스 및 방문요양서비스에서 실시되고 있는 일반적 물리치료적 접근 방식은 내용의 중복으로 인하여 요양전문가들 간의 갈등 소지가 있다[15].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서비스의 시행보다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방문물리치료의 도입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방문물리치료를 대한 홍보와 관련 연구가 따라야 한다[16]. 그 시작은 재활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물리치료사들이 가장 먼저 올바른 인식과 관련 연구를 실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올바른 방문물리치료 도입을 위한 조건과 관심을 나타

내야 한다. 먼저 방문물리치료에 대한 공급자 및 수요자 측면에서 그 수요부터 파악하고 방문물리치료의 도입을 위한 단계적·중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지속적 시범사업을 통해 운영에 대한 최적요소를 찾는 데서 시작되어야 한다. 특히 기능장애를 가진 노인에게서 재활과 물리치료서비스에 대한 이용욕구와 관심이 높았던 것을 알 수 있듯이[17] 노인장기요양보호대상자 중 거동이 불편하여 의료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을 위해 방문물리치료 도입을 위한 보다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 시작은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물리치료사의 인식에서 비롯된다고 생각되어진다. 이 연구의 제한점은 제도에 있어서의 환경적 면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다. 방문물리치료 실시에 있어서 도입시기가 늦어지는 이유 중의 하나는 재원확보에 있다고 생각되어진다. 현재 요양보호관련 종사자들의 직무만족도에 대한 연구[18]에서 보여지듯 직무만족도가 떨어지는 이유를 파악하고 개선하여 제도적 확대를 위한 준비과정이 절저히 이루어져야 방문물리치료의 제도적 도입에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진다. 또한 이 연구의 의의는 그 재활현장의 가장 전방에 있는 물리치료사들의 방문물리치료 도입에 있어서의 인식도를 알아보는 과정을 통해 제도적인 이해와 생각해 보는 기회를 제공한 점과 운영에 대한 방법들을 제시함으로써 제도적 도입 시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든 것이라 할 수 있다.

V. 결론

본 연구는 노인시설에서 근무하는 물리치료사를 대상으로 한국노인시설중앙회에서 주관하는 2011년 전국 노인시설 물리치료사 연수회 기간 중 방문물리치료에 대한 인식정도와 필요성 및 방문물리치료에 대한 운영방안, 노인장기요양제도에서의 방문물리치료의 시행되었을 때의 기대효과 등에 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있어서의 방문물리치료에 대한 인식과 필요성에 대한 설문에서 노인요양보험

제도 시행에 있어서 방문물리치료서비스 제공이 현행 실행되지 않고 있는 사실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알고 있다는 답변이 88.1%로 모르고 있다는 답변 11.9%보다 높게 나타났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의 방문물리치료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한 문항에서는 절대필요하다와 필요하다라는 답변이 각각 48.1%, 50.6%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는 상당히 높았으며, 연령에 따른 인식도는 30세 미만인 경우는 필요하다라는 응답이 70.0%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타 연령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40세 이상인 경우는 절대 필요하다라는 응답이 60.3%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타 연령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3. 방문물리치료 운영방안에 대한 설문에서 자격조건에 대한 물음에는 교육과정 이수와 노인시설물리치료 경력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는 의견이 51.9%로 가장 높았으며, 방문물리치료의 적당한 주 방문횟수에 대한 생각에서는 2회가 60.0%로 다른 의견에 비해 높았고 적당한 방문 시간에서는 30~60분 미만이 78.1%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방문간호 수가보다 상향하여 책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59.7%로 가장 많았다.
4. 방문물리치료서비스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치료접근에 대한 문항으로는 일상생활 동작 지도가 40.0%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근 골격계 통증치료(전기치료 포함)가 28.1%, 신경계 운동치료가 24.4%, 건강관리지도 및 상담이 3.1% 순으로 나타났으며, 방문물리치료서비스의 운영주체는 어디가 좋겠느냐는 문항에서는 현재 방문간호센터에 준한 방문재활센터로 해야한다는 의견이 69.4%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 방문물리치료 시행에 따른 기대효과에 대한 문항은 10문항으로 기대효과가 매우 크다가 5점, 기대효과가 거의 없다는 1점으로 척도화 하여 50점 만점으로 산출하였는데, 전체 기대 효과의 평균 점수는 41.44점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에 따른 기대효과

차이 결과, 40세 이상이 42.48점으로 나타났으며 경력에 따른 결과로는 3-5년 경력자가 42.68점, 5년 이상이 41.74점으로 대체적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경력이 오래 된 경우가 방문물리치료에 대한 기대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노인시설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풍부한 물리치료사들이 방문물리치료에 대한 이해도와 운영방안에 대한 현실적 접근 및 필요성에 대하여 보다 인식이 높았으며 적극적인 면과 현실적 필요성을 실감하고 있었다. 이는 방문물리치료 도입에 있어서도 경험이 많은 현재 근무 중인 물리치료사들의 참여와 의견반영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진다.

참고 문헌

[1] 인구주택총조사, 2010.
<http://census.go.kr/hcensus/ui/html>

[2] 김순자, 노인 물리치료, 영문출판사, 2006.

[3] 보건복지가족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주요내용, 2008.

[4] 선우덕, 오영희, “노인일상생활수행능력향상을 위한 보건복지서비스 연계모형 개발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5]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국민인식도 및 만족도 조사, 2009.

[6] <http://economy.donga.com/total/3/01/20110703>

[7]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2004.

[8] 김순자, 김정선, “노인요양시설 물리치료사들의 노인복지정책과 노인질환에 대한 이해도 및 직무환경에 대한 조사”, 대한물리치료사학회, 제14권, 제1-4호, pp.25-36, 2007.

[9] 윤혜상, 노인간호학, 청구문화사, 2006.

[10] 안경희, “노인(요양)전문 병원에서의 노인의료 서비스 활성화 방안”, 신라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11] 조추용,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요양보호사

의 전문성 확보에 관한 연구”, 한국노연학, 제16권, pp.9-40, 2007.

[12] 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8-23호, 장기요양인정 점수 산정방법, 2008.

[13] 조순금, “노인을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 사업의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에 대한 연구”,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14] 이해영, “일본의 가정방문사업에 관한 연구”, 대한물리치료학회지, 제12권, 제1호, pp.113-118, 2000.

[15] 최명숙, 윤영미, “한국의 가정간호사업 현황 및 정책과제”, 논문지, 제18권, pp.469-486, 2000.

[16] 윤태영,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한 방문물리치료 서비스 도입 방안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17] 조은영, “제가기능장애노인에 대한 재활서비스의 필요성 및 이용욕구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18] 임정도, “요양보호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 간의 관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1권, 제1호, pp.225-235, 2011.

저자 소개

이 광 재(Kwang-Jae Lee)

정회원



- 2006년 2월 : 성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사회복지학 석사)
- 2009년 3월 ~ 현재 : 한서대학교 일반대학원 물리치료학전공(박사과정)
- 현재 : 안산대학교 물리치료과

겸임교수

<관심분야> : 노인물리치료, 치매재활, 방문물리치료

노 정 석(Jung-Suk Roh)

정회원



- 1998년 2월 : 연세대학교 대학원
(이학석사)
- 2007년 8월 : 연세대학교 대학원
(이학박사)
- 2000년 3월 ~ 현재 : 한서대학
교 물리치료학과 교수

<관심분야> : 임상운동학, 생체역학